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제사장들의 음식과 옷과 거처이신 그리스도

성경: 히 10:5-10, 요 6:57, 63, 갈 3:27, 롬 13:14, 뱀전 2:5상, 시 27:4

I. 그리스도는 제사장들의 음식이다 — 요 6:57, 63, 렘 15:16.

- A.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대치하시고, 구약의 모든 예표를 끝내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다 — 히 10:5-10.
- B.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위한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생활하여,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목표는 바로 우리 모두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심으로써, 그분의 우주적이고도 확대된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를 위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취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취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 요 1:14, 29, 14:23, 계 21:3, 22.
 - 1. 속죄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유죄 판결하신 것을 상징한다 — 레 4:3, 6:26, 고후 5:21, 롬 8:3, 요 1:29, 3:14.
 - 2. 속건제물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처리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용서하신 것을 상징한다 — 레 5:6, 7:6-7, 뱀전 2:24, 3:18, 사 53:5-6, 10-11, 요 4:15-18.
 - 3. ‘하나님을 위한 음식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하여’ 번제물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신 그리스도, 곧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누리실 수 있고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식’이었다 — 레 1:3, 민 28:2-3, 요 7:16-18.
 - 4. 소제물은 합당하고, 고르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균형 잡히고, 순수하고, 죄가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사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2:1, 3-4, 요 7:46, 18:38, 19:4, 6.
 - 5. 화목제물은 화평하게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 곧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교통이 되신 분을 예표한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만족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레 3:1, 7:14, 31-34, 엠 2:14-15, 요 12:1-3, 20:21, 계 21:2.
 - 6. 요제물은 사랑이 가득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레 7:30, 10:15.
 - 7. 거제물은 승천하시고 높여지신 능력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7:32, 출 29:27, 엠 1:21.
 - 8. 전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그리스도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러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다 — 출 29:40, 민 28:7-10, 사 53:12, 빌 2:17, 딤후 4:6, 삿 9:13, 마 9:17.

9. ‘입재의 떡’, ‘얼굴 떡’은 하나님의 입재, 곧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잔치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공급이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 출 25:30, 레 24:9, 비교 삼상 21:6.

II. 그리스도는 제사장들의 옷이다 — 갈 3:27, 롬 13:14.

- A.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롬 6:3, 갈 3:27), 여전히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갈 2:20)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냄으로써(빌 1:21)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20절).
- B.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빛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롬 13:12)과 같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과 육체의 정욕 사이의 전쟁을 위한 빛의 무기이심을 가리킨다(롬 6:13, 갈 5:17).
- C. 예표에서 의복은 표현을 상징한다(비교 사 64:6, 계 19:8).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현을 상징한다. 성경에 따르면,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 D. 주로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을 상징한다 — 출 28:2.
1. 영광은 그리스도의 신성 곧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과 관계있고(요 1:14, 히 1:3),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인성 곧 그분의 인간 미덕들과 관계있다.
 2.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금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광을 위한 것이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세마포(출 28:5)로 예표된 그분의 인성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다.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체계가 될 자격이 있게 한다(빌 1:20, 고전 6:19-20, 갈 6:17, 비교 행 6:15).
- E. 모든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 긴 속옷, 허리띠, 관을 착용했다(출 28:39-42, 29:8-9상). 여기에 더하여 대제사장은 긴 속옷 위에 겹옷, 예봇, 어깨받이, 가슴받이를 착용했고, 관 위에 글을 새긴 패를 착용했다(28:36-37, 29:5-6).
1. 세마포로 만든 긴 속옷은 처리받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는 것을 상징한다(계 19:8). 세마포로 만든 두건은 완전한 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빌 3:3, 롬 5:2, 고전 1:31). 수놓아 짜는 기술자의 수공으로 만든 허리띠는 그 영의 조성하시는 일로 강화하는 것을 상징한다(엡 3:16). 제사장 의복의 이 세 부분과 함께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출 28:42)는 모두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타락한 존재 전체를 덮으시는 것을 상징하며(눅 15:22, 고전 1:30),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출 28:43).
 2. 대제사장이 입은 긴 겹옷과 그 모든 장식품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충만이자 표현인 교회를 상징한다 — 엡 1:22-23.
 3. 성막 안에는 금이 있고, 제사장의 겹옷의 가슴받이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힌 열두 보석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지파들이 보석으로 변화되고, 금에 붙들려 있고, 함께 건축된 것을 가리킨다. 제사장의 겹옷의 어깨받이 위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힌 두 개의 마노 보석이 있었다 — 출 28:9-12.
 - a.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하게 됨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금으로 상징되고, 또한 그들의 변화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보석으로 상징된다.

- b. 제사장들은 그들의 영광스럽게 됨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보석들이 빛나는 것으로 상징되고, 또한 그들의 건축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열두 보석이 금테 안에 박혀 함께 건축된 것으로 상징된다.
- 4. 에봇은 그분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 안에서 그분의 속성들과 미덕들을 통해 표현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의 일부로서 고정시키거나 묶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 출 28:4-6.
 - a. 에봇에는 두 개의 마노 보석이 달린 두 어깨받이(출 28:9)와 열두 보석이 박힌 가슴받이(15절)가 묶여 있고 고정되어 있다(12-28절).
 - b.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에봇의 구성 요소인 그분의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그분 자신께 붙드시고 묶으시고 고정시키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 고후 1:21.
 - c. 금실, 청색 실, 자주색 실, 진홍색 실, 세마포를 짠 끈 실은 서로 다른 색깔의 실들이었다. 그러므로 에봇은 그리스도의 조성 성분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상징인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분의 신성(금), 그분의 하늘에 속하심(청색), 그분의 왕다우심(자주색), 그분의 구속(진홍색), 그분의 고운 인성(세마포)으로 구성된 분이시다.
 - d. 에봇의 어깨받이에 달린 두 개의 마노 보석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것, 곧 즐거운 기념물이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회를 붙들어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다 — 출 28:12.
- 5. 두건에 있는 거룩한 관(출 29:6)은 대제사장이 쓴 두건에 덧씌워서 고정시킨, ‘여호와께 거룩함’(출 28:36)이라는 글자를 새긴 금패를 가리킨다.
 - a.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신성한 본성이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문제이다 — 벰후 1:4, 벰전 1:15-16, 비교 계 21:2.
 - b.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새긴 것은 제사장 체계 전체가 주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즉 주님께로 분별되고 주님으로 적셔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III. 그리스도는 제사장들의 거처이시다 — 시 90:1, 91:1, 27:4, 요 15:5, 14:23.

- A. 제사장들의 의복은 성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 1. 천과 휘장과 성막 입구의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끈 실로 짠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제사장의 의복에도 역시 이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출 26:1, 5-6, 31, 36, 28:8.
 - 2. 성막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많은 항목들이 있었고, 제사장의 의복은 금실과, 보석을 위한 금테로 만들어졌다 — 출 28:6, 11, 13, 20, 39:3.
 - 3.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재료들을 입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은 것이 그들이 거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옷이 곧 그들의 집이었다 — 비교 고후 5:1-4.
 - 4.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옷은 성막과 똑같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성막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요 1:14, 딤펢전 3:15-16)는 모두 제사장들이 거하는 장소이다.
 - 5.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몸이신 그리스도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몸으로 덮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몸을 ‘옷으로서 입어야’ 한다. 몸이 우리의 옷이고 우리의 덮개이다 — 엡 4:22-24, 2:15-16.

B.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 벧전 2:5.

1. 거룩한 제사장 체계, 곧 단체적인 제사장 무리가 영적인 집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져서 명확하고도 충만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실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될 것이다.
2. 우리는 금과 세마포와 청색과 자주색과 진홍색의 표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새사람을 입은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옷으로 입은 것이다.
3.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합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표현할 때 새사람이 우리의 옷이 되고, 이 옷이 우리의 집 곧 성막의 실재가 되며, 성막의 실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4.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자 거처인 교회는 건축된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실재에 있어서 교회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안식하고 거주하며 머물 장소를 얻는다 — 비교 시 132:8, 13-18, 사 66:1-2.
5.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표현이 우리 안에서부터 발산되어 나올 것이다. 우리 모두의 안에서부터 표현된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거룩한 제사장 체계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다 — 시 90:1, 91:1, 요 15:5, 14:23, 엡 3:16-17, 벧전 2:5, 계 21:3, 22.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제사장들의 음식과 의복과 거처이신 그리스도

새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새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몸을 입는 것이고, 몸을 입는다는 것은 몸으로 덮인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몸이 우리의 의복이 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몸을 ‘입어야’ 한다. 몸이 우리의 의복이요, 우리의 덮개이다. 이것이 바로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누림을 통한 표현

우리는 제사장들의 생활의 첫째 항목이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는 것임을 보았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날마다 적어도 세 번 식사를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먹어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일부분이 된다. 과거에 우리는 닭과 달걀, 고기, 감자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섭취했다. 우리가 먹은 닭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달걀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닭들과 달걀들이다. 즉,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는 우리가 전에 먹어 왔던 모든 것들의 구성체이다. 제사장 체계의 생활은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제사장 체계를 알려면 먼저 매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때 우리가 먹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현이 되신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복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음식은 안의 공급이고, 우리가 입는 의복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의 밖의 표현이다. 우리가 온종일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결국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표현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분은 더 표현되실 것이고 이 표현이 의복이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그분을 표현할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안에 받아들인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이다. 이 표현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의복이다.

제사장의 의복은 주로 다섯 가지 요소 곧 금, 고운 세마포, 청색 실, 자주색 실, 진홍색 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표현은 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을 대표하는 금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셔야 한다. 우리는 인성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금인 신성한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다.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금은 우리의 천연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성한 것, 곧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다.

그다음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표현에는 고운 세마포가 있어야 하는데, 고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의를 의미한다. 우리는 매우 순수하고 의로우며 공정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대단히 정직하고 의로우며 매우 순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순수하거나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제사장 체계는 정직과 공정과 의의 참된 표현이다.

제사장 체계는 또한 청색을 표현해야 한다.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상징한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생활에는 하늘에 속한 청색의 표현이 있는가?

또한 자주색의 표현도 있어야 한다. 역사를 보면, 고대에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었다. 왕족의 모든 사람은, 특별히 왕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자주색은 왕권과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왕의 위엄을 지녀야 한다. 너무 천박하거나 평범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위엄을 잃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영적이고 신성한 위엄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진홍색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워치만 니 형제님과 함께 지낸 후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워치만 니 형제님은 항상 주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상 집회에서 그는 피를 적용하는 깊은 말씀을 자주 말했다. 나는 그의 곁에 있을 때 언제나 진홍색의 느낌을 가졌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피를 적용했다. 왜 그런가? 그가 구속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피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께 갈 수 없다. 제사장들 중 그 누구도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느끼든 없다고 느끼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옛 본성 안에 있고 아직도 이 불결한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모양으로, 곧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우리는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피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진홍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속하는 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

많고 더럽혀졌으며 불결하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피로 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덮는 피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신성한 본성과 순수함과 의와 하늘에 속함과 왕의 위엄과 구속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면, 이 모든 항목들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한 본성과 순수함과 하늘에 속함과 왕권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인상을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접촉할 때, 또는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신성한 본성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의와 하늘에 속함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더욱 느낄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하늘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함을 표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구속을 또한 느낄 것이다. 제사장의 이 의복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표현을 통한 건축

제사장들의 옷이 성막과 똑같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들의 옷은 금과 고운 세마포와 청색 실, 자주색 실, 진홍색 실로 만들어졌다. 성막도 또한 금과 고운 세마포와 청색 실, 자주색 실, 진홍색 실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의복은 그들의 집이었다.

교회는 바로 많은 성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우리 모두의 안에서부터 표현되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이러한 표현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일지 모르지만, 참된 교회생활은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의복이 그들의 집이요, 그들의 거처였다. 이 의복은 성막과 똑같았고, 성막은 그들이 거주했던 장소였다.

우리는 오늘날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의해 예표된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은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전에 ‘제사장 체계’라는 말이 제사장 무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있는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제사장 체계는 제사장 무리를 의미한다. 거룩한 제사장 체계는 영적인 집, 곧 제사장들의 단체적인 무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적셔져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다. 예표에 따라 말하자면, 우리는 성막이 될 것이다. 성막은 결코 제사장들과 분리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고, 성막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있다. 제사장들은 성막과 함께 가고, 성막은 제사장들과 함께 간다. 신약은 제사장들이 영적인 집, 곧 성막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합당한 거처, 곧 영적인 집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말한 대로 성막은 금과 고운 세마포와 청색 실, 자주색 실, 진홍색 실의 표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곧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을 표현하는가? 우리에게는 순수함이 있는가? 우리는 청색, 자주색, 진홍색을 표현하는가? 만일 아니라면 무엇을 표현하는가? 타고난 어떤 것인가? 육체에 속한 것인가? 만일 타고난 것, 육체에 속한 것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성막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금과 순수한 세마포와 청색 실, 자주색 실, 진홍색 실의 표현을 지녀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 곧 성막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한 합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새사람을 입은 것이다. 즉, 교회를 입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옷 입혀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신성한 본성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신성한 본성을 표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때 자아와 그보다 더 나쁜 육체까지 표현할까 봐 염려된다. 종종 우리는 금 곧 신성한 본성 대신 자아와 육체와 혼과 옛사람과 타고난 생명을 나타낸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교회생활 밖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죄와 부도덕함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순수함과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가? 하늘에 속한 어떠한보다 세상적인 것을 표현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세상적인 것만 볼까 봐 두렵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성막의 휘장이 표현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 성막의 휘장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우리는 자주색에서 보이는 대로 왕권을 표현하는가? 때때로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낮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것만 표현할 뿐이다. 그러면 구속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사랑스런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 봐 염려스럽다. 나는 많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그들 중 다수가 주님을 만질 때마다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더럽혀졌고 불결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한다. 우리는 더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가 옳다고 느낀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구속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전체'를 표현해야 한다. 그때 성막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막이 된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집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지점에 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더라도 우리는 항상 집 없는 상태이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 왜냐하면 합당하고 참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그분을 합당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교회의 일부가 되고 교회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안식하고 거주하며 거할 처소가 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다. 교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우리를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지 못한다. 우리는 실재를 점검해야 한다. 정말로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집이 있다고 느끼는가? 항상 이런 느낌이 있는가? 주님을 찬양한다. 나에게 영적인 집이 있다. 그 집은 내가 일부분이 된 참된 교회생활이다. 새사람은 나의 의복이 되며 이 의복은 나의 집이다. 이 새사람을 입을 때 나는 바로 집에 있다. 여기에 안식이 있다. 여기에 거주할 수 있고 여기에 거할 수 있다. 나의 전 생애는 이제 이 집에 있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집에 있는가? 당신에게는 영적인 집이 있는가? 여러 해

동안 나는 가정생활을 누렸고, 이 가정은 참된 교회생활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과 육체에 속한 것을 나타낼 때마다 나는 즉시 교회생활 밖에 있게 된다. 나는 집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우리가 이 다섯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뿐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의복을 갖게 되며 의복은 우리의 집이 된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생활의 일부가 되며, 그리하여 우리는 집에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게 되고 이 표현 안에 거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에는 건축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모든 보석은 금테에 물려진다. 그들은 신성한 본성과 ‘함께’ 건축되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서로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 곧 교회이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살아 있는 돌인 우리가 살아 있는 영적인 집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무리로서, 제사장 체계로서 건축될 때,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단체적으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독립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독립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립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것 자체만으로는 결코 사람들을 의존적이 되도록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의존적이 되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할 때, 우리의 개인주의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만 우리는 몸의 동역 안에 있고 몸과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과 동역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고 내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전해 주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적셔질 때뿐이다. 그때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이다. 그때 우리의 개인주의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참된 교회생활 안에서 성도들과 저절로 하나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것이 교회의 건축이다.

금에 물려진 보석들의 건축은 제사장의 의복에서 이루어졌다. 이 의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음식으로 누리는 제사장들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양분과 음식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소화하는 동안,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에게 스며드실 것이다. 그때 이 표현은 우리의 의복이 되고, 이 의복에는 금에 물려진 보석들인 성도들의 건축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축은 그리스도의 표현 안에 있고,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누림에서 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생활이 다만 가르침이나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여 강조해 온 이유이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만으로는 참된 교회생활을 할 수 없다. 실제적인 교회생활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리는 데에서만 온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것을 교리로 받지 말고 매일의 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온종일 주님을 먹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양분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누림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인 ‘의복’을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표현 안에서, 신성한 본성에 물려진 성도들의 건축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눈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보기 위하여 열려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백오십여 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어 왔지만 결과는 항상 분열뿐이었다. 교리들은 기독교 안에 분열을 가져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순절 운동의 은사는 대부분 혼란만을 초래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속 생명에서 나오는 제사장 체계를 회복하시리라고 믿는 이유이다. 가르침이나 은사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것은 가르침이나 은사의 회복이 아니라 제사장 체계를 통한 교회생활의 회복이다. 제사장 체계를 통한 교회생활은 다만 가르침이나 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표현이 우리 안에서부터 발산될 것이다. 그때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몸의 건축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이 건축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올바른 길을 말해 주는 우림과 둠뮴의 계시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빛이요 완전함이다. 빛 비춤과 완전함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신성한 본성에 물려진 성도들의 이러한 건축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제사장 체계 안으로 이끄시기를 바란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제사장 직분, 741-750쪽*)